

세아그룹, 철강업 한계 넘는다 방산·풍력 등 고부가사업 육성

철강업황 부진 지속… 돌파구 모색
원전해체 분야 등 수익성 확보 나서
스페셜티 제품 생산거점 확대 계획

철강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아그룹이 활로를 찾기 위해 항공·방위산업과 해상풍력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범용 철강제품에서 벗어나 스페셜티 소재와 대형 구조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수익성 방어에 나선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관관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세아제강지주의 2분기 매출은 1조2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50억 원으로 0.9% 감소, 당기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26.2% 줄었다.

특수강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세아홀딩스 역시 매출은 1조7000억 원으로 6.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46억 원으로 46.4% 급감했고, 순이익도 191억 원으로 46.8% 감소했다. 이는



세아그룹 본사 전경. (원형사진)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세아그룹

미국발 고율관세, 공급 과잉, 국내 철강 수요 부진 등으로 철강업황이 악화된 영향이다.

반면 항공·방산 계열사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올해 2분기에 매출 333억원, 영업이익 6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각각

31.7%, 82.1% 증가했다. 세아창원특수강도 고부가 스테인리스 판매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원전 해체와 해상풍력 시장도 미래 성장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용기(CASK) 제작 경험을 갖춘 국내 기업 중 하나로 이미 해외 수출 실적을 확보했으며 한수원에 350억 원 규모 KN-18 CASK를 납품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2050년까지 400기 이상의 상용 원전 해체가 예상되며 관련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아그룹은 향후 스페셜티,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 거점도 확대해 대륙별 공급망을 구축하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 전반이 범용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항공업계, 中 노선 기반 실적개선 나서

한중 무비자 입국에 맞춰 경쟁력 강화
“양국 여객수요 확보가 실적개선 좌우”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시행하면서 항공업계가 중국 노선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하늘길이 다시 ‘황금 노선’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 이내 비자없이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발 맞춰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증편과 신규 취항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주당 194회

운항했던 중국 노선을 다음 달부터 주당 203회로 늘릴 예정이다. 인천~쿤밍, 부산~칭다오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인천~푸저우 노선은 지난해 12월 신규 취항하여 현재 주 4회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3월부터 중국 노선을 기존 대비 주 26회 늘려 총 18개 노선, 주 164회 운항에 나섰다. 충칭·청두 노선을 재운항했으며, 다롄은 주 7회에서 10회로, 창사는 주 4회에서 5회로, 옌지는 주 5회에서 8회로, 창춘은 주 6회에서 9회로 증편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대형항공사(FSC)와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다.

제주항공은 부산~상하이, 인천~구이린 신규 노선과 인천~옌지, 웨이하이 증편을 준비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청주·대구~옌지, 인천

~우한 노선을 운항하며 지방공항 기반 확대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인천~상하이, 청주~연길, 부산~연길, 제주~상하이, 청주~장가계, 인천~정저우 노선을 운항 중이다. 지난 19일부터는 인천~옌타이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 역시 인천~칭다오 운항을 재개했고, 다음 달에는 인천~구이린 노선 신규 취항하면서 경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단체 관광객 복귀는 국내 LCC 입장에서 실적 개선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한·중 간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관광 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소기업계 “국세행정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해야”

중기중앙회 임광현 국세청장 간담회
세무조사 등 25건 제도개선 과제 전달

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기업들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를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이 내년에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

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선 세무조사에 대한 어

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국세청이 세무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전했다.

임광현 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승호 기자



(왼쪽부터)휴넷 조영탁 대표,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전 부회장, 서울대 김세직 명예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내셔널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휴넷CEO포럼 - 포사이트 코리아 2026’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휴넷

권영수 “기업교육 역량, AI기술 성과 좌우”

〈前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휴넷 CEO 포럼

1000여명 온·오프라인 참석

경영 전략 등 5개 분야 32개 강연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고성장 시대를 끝내고 ‘피크 코리아’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AI 기술’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꼽았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내년도 기업들의 사업계획 키워드로 ‘인공지능(AI)’과 ‘리밸런싱’을 선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휴넷이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내셔널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휴넷CEO포럼 - 포사이트 코리아 2026’에서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내년도 사업계획 시즌에 맞춰 국내 CEO와 임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로 1000명 가량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세직 교수는 ‘피크코리아, 정점에 선 대한민국’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저성장·인구 감소라는 ‘피크 코리아’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를 포함해 지금 뭐라도 해야 한다.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피크코리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몬스, ‘블랙 시몬스 데이’ 프로모션

‘뷰티레스트 블랙’ 등 할인 혜택

시몬스가 연중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다채로운 혜택을 담은 ‘블랙 시몬스 데이(BLACK SIMMONS DAY)’ 프로모션을 펼친다.

30일 시몬스에 따르면 블랙 시몬스 데이 프로모션은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이자 침대업계 메가히트 매트

권영수 전 부회장은 ‘경영을 새로 쓰다: 새로운 질서 속 성공 방정식’이란 기조강연에서 “기업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인사 제도의 혁신과 최고경영진의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직원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철학이 조직문화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AI는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AI를 도입하면 잉여인력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인재를 뽑아 철저하게 AI를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혁신과 창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기조 강연을 비롯해 ▲경제·국제 정세 ▲경영 전략·혁신 ▲마케팅 ▲조직 인사·리더십 ▲테크·AI 등 5개 분야에서 총 32개의 강연이 펼쳐졌다. 특히 ‘AI Powered HR’, ‘AX의 실패 요인’, ‘컨슈머 AI’ 등 AI 관련 세션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의’, ‘2026 한국경제 전망’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강연도 관심도 높았다.

휴넷 조영탁 대표는 “인구는 감소하고 AI는 모든 질서를 재편하며 빅테크는 산업 생태계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이제 ‘업데이트’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리셋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를 특별한 혜택에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시몬스의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도 할인 판매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매트리스 커버, 1개, 룸 스프레이, 침구세트 등 푸짐한 사은품도 제공된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비렉스 모디 매트리스’ 출시

코웨이가 안정적인 지지력과 최적의 안락함을 갖춘 ‘비렉스(BEREX) 모디 매트리스’(사진)를 출시했다.

30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은 편안함을 한층 강화하고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와 모던한 퀴팅 패턴, 레이온 혼방 자카드 원단을 적용해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가장 큰 특징은 ‘시그니처 독립 스프



링’이다. 각각 분리된 형태의 스프링이 움직임을 최소화해 옆 사람의 뒤척임에도 흔들림 없는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